

“뷔페 이용 안하면 결혼식 못합니다”

광주 대형 예식장들 ‘조건부 계약’ 황포에 신랑·신부 울상

식사 인원 200명 안되면 예약도 못해 맛 없어도 값 비싸도 ‘올며 뷔페 먹기’

이달 초 결혼한 이모(여·29)씨는 예식장의 ‘패키지’ 상술 때문에 크게 속이 상했다. ‘예식장 내 뷔페 식당을 이용하지 않으면 예식장 대관이 불가능하다’는 강요 때문이었다. 다른 예식장 2곳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들은 이씨는 결국 예식장 내 뷔페 식당을 함께 예약했다.

이씨는 “예식장 근처에서 식단을 운영하는 친척이 있어 하객들에게 식사를 따로 대접하려 했는데 예식장 측의 알뜰한 상술 때문에 무산됐다”며 “하객들 사이에서 ‘음식이 형편없었다’는 말까지 나와 더욱 분통 터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전 11시·오후 2시 예식을 기준으로 ‘하객 식사 200명 이상’을 기본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하객 100명 미만인 참석하는 소규모 결혼식은 저녁시간에만 예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 예식장 관계자는 “예식홀만 대여해주고 식당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 예식장 운영 자체가 어렵다”며 “다만 예식이 거의 없는 여름철 비수기에는 식사를 제외한 예식장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비 신랑인 김모(32·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씨는 “다음달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을 둘러봤는데 대부분 패키지 계약을 중용했다”며 “일생에서 가장 큰 행사인 결혼식이 예식장 업계의 압제 상흔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예식장이 식사 메뉴를 ‘뷔페’로 정해놓은 탓에 혼주들이 제공하고 싶은 음식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예비 신랑인 김모(32·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씨는 “다음달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을 둘러봤는데 대부분 패키지 계약을 중용했다”며 “일생에서 가장 큰 행사인 결혼식이 예식장 업계의 압제 상흔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23일 광주지역 한 예식장 식당에서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한 하객들이 뷔페식으로 마련된 메뉴를 고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제내용과 관련 없음>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순천서 마트에 불 2억여원 피해

지난 22일 새벽 2시55분께 순천시 조례동 모마트 1층 매장에서 불이나 내부면적 804㎡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2억2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50분 만에 꺼졌다.

불이 난 곳은 2층 구조로 된 건물(샌드위치 패널리)로 1층에는 식품·정육·수산코너가, 2층에는 매장 사무실이 들어서 있다.

이날 불은 매장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 매장에 설치된 전자동 제빙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미루 제빙기 내 컨트롤 박스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광주 운암동 철로 20대 男 변사체

경찰 국과수에 부검 의뢰

광주의 한 철길에서 20대 남성이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돼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2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새벽 3시25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광안로 부근 철로에서 광주 모 기업 연구 보조원 이모(22·광주시 북

구 운암동)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씨가 철로를 가로질러 집에 가려다 열차에 치여 숨진 것인지,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뒤 발견된 장소로 옮겨진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가려내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종형 기자 glee@kwangju.co.kr

흥어회 먹은 60대 입원

전남도, 역학조사

흥어회를 먹은 60대 남성이 장염으로 인한 패혈증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23일 무안종합병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무안군 몽탄면에 거주하는 박모(60)씨가 패혈증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지만 밤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24일 오전부터 증세가 약간 호전됐다.

박씨 가족들에 따르면 박씨는 사흘 전 흥어회를 먹고 발열과 설사증세를 보이던 중 이날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역학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계절상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폭죽놀이 초등생 얼굴맞아 중태

지난 21일 오후 7시20분께 광주 모 초등학교 5학년 김모(12·광주시 광산구)군이 고층군 과역면 자신의 할아버지 집 근처에서 폭죽을 갖고 놀다 턱과 얼굴 등을 크게 다친 것을 가족들이 발견, 119와 경찰에 신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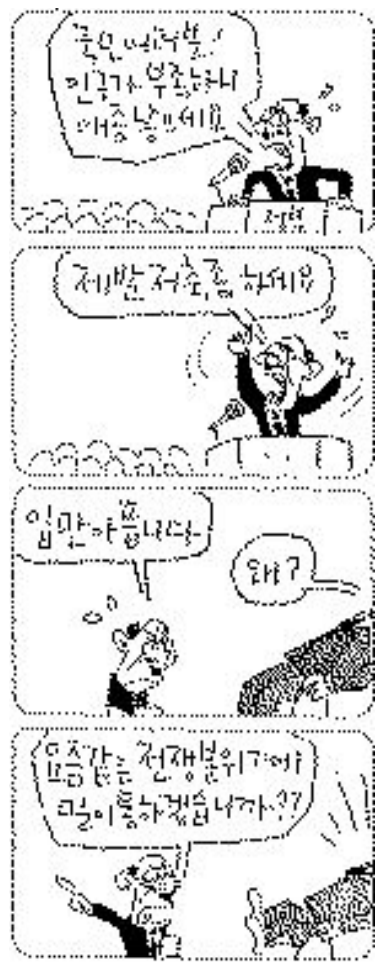
김군은 사고 직후 별교의 한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광주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다.

경찰조사 결과 김군은 이날 할아버지의 생일을 맞아 시골에 놀러갔다가 자신의 형과 함께 할아버지 집 근처에서 폭죽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로켓 모양의 폭죽이 발사되지 않아 얼굴 쪽에 폭죽을 가져다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나원침 (8028) 김중두



프로야구 팬 차량털이 덜미

광주북부경찰은 23일 프로야구 팬들의 차량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박모(41)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에 북구 일동 무등야구장 후문 맞은편 도로에 주차한 이모(30)씨의 승용차에서 125만원짜리 노트북을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68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훔친 혐의다. /이종형기자 glee@

6년 메모지 소통 노부부 이혼 판결

○--법원이 6년 동안 메모지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며 살아온 노부부에게 이혼하라고 판결.

○--수원지법 가사부(전주혜 부장판사)는 76세의 A씨가 80세의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이혼 및 일부승소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와 40년간 부부 생활해오며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오다 급기야 2003년부터 이른바 ‘메모지 생활’이라는 다소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원고를 통제하고 간섭하며 폭력까지 휘둘러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라고 판시.

○--이를 부부는 성격차이로 갈등을 빚다 2003년경 B씨의 제의로 ‘메모지 생활’을 시작, B씨가 메모지를 통해 명령하고 A씨가 답을 하는 식으로 의사소통. /연합뉴스

MEGABOX

1관	하녀 (184)	최고급관
2관	로빈 후드 (154)	
3관	하녀 (184)	
4관	아이언맨2 (124)	
5관	드래곤볼이기(3D)(전체)	
6관	로빈 후드(154) / 시(154)	
7관	내 짝배같은 애인(154)	
8관	나이트메어 (184)	
9관	하녀 (184)	

• 호남주치단위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이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현대약국사거리 ☎ 1544-0600

컬럼버스시네마

1관	내 짝배같은 애인(154)
2관	구르몽 버서난 달처럼(154)
3관	로빈 후드(154)
4관	로빈 후드(154)
5관	드래곤볼이기3D(전체)/시(154)
6관	드래곤볼이기3D(전체)
7관	아이언맨2 (124)
8관	나이트메어 (184)
9관	하녀 (184)
10관	아이언맨2 (124)
11관	하녀 (184)

3D디지털 상영!
4/1(목) 상무점, 아남점 동시개봉!

1588-7941 상담현원 별방-(1번 or 2번)→0번

CINUS 씨너스

1관	나이트메어 (184)
2관	로빈 후드(154)
3관	하녀 (184)
4관	시(154)
5관	아이언맨2 (124)
6관	내 짝배같은 애인(154)
7관	드래곤볼이기3D(자막)(전체)
8관	드래곤볼이기3D(자막)(전체)
9관	드래곤볼이기3D(자막)(전체)

씨너스 전대 3D(4K) 상영!
• 무료주차 3시간 • 아남점 상담현원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 1544-0070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Primus 제일극장

1관	하녀 (184)
2관	아이언맨2 (124)
3관	내 짝배같은 애인(154)
4관	나이트메어 (184)
5관	로빈 후드(154)
6관	드래곤볼이기(3D)(전체)
7관	구르몽 버서난 달처럼(154)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 세무소 앞 호남타워타워 -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글래디에이터〉의 10년 신화가 깨진다!

새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 / www.jeilsinema.co.kr
중앙로 3가 ☎ ARS 전화예매 ☎ 227-1960